

업 앞 지원금액의 99%는 항공산업⁶⁾에 집중되었다. 외국정부 앞 대출은 국가별로 중국(52%), 루마니아(13%), 베네주엘라(6%), 터키(4%) 순이며, 이 가운데 양허성 대출은 중국에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외국정부와 민간기업 앞 지원을 포함한 국가별 여신공여는 미국(60.4%), 중

국(20.1%), 루마니아(4.9%) 순이며, 지역별로는 북미·카리브 해 지역(61%)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정부계정의 대출자산 중 고채무빈국(HIPC) 앞 채무탕감 또는 채무감축 대상 자산비중은 약 6% 정도이다.

【이 진 의】

◆ EDC,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과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협정 체결

지난 12월 7일 EDC는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과 1,500만 달러 상당의 전대자금 신용한도 공여협정을 체결했다. 최근 캐나다 기업의 동유럽 시장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으며, EDC는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 앞 전대자금 공여를 통하여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상품수출과 해외투자 지원강화를 모색 중이다.

사실 캐나다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액은 2004년 말 기준 4,300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며 현재 상품수지는 적자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평

균 수출 증가율은 80%대를 웃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앞 농업기계 및 식품 가공 분야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2년에 설립된 우크라이나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100% 소유한 국책은행으로 2004년 말 기준 자산규모로는 우크라이나에서 6번째로 크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90여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 은행은 외국기업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 및 해외투자시 정부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일반 상업 금융 업무도 수행한다.

【이 진 의】

◆ ECGD, 카자흐스탄 무선통신네트워크 사업에 수출보험 제공

ECGD는 카자흐스탄 무선통신망 확장사업을 위한 3,000만 달러 계약에 대하여 수출보험을 지원하였다. 카자흐스탄 전국에 걸쳐 주파수 900MHZ 대역의 무선통신망을 확장하는 본 건의 사업자는 금년 5월 모토로라로 결정되었으며 전체 사업금액은 약 1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ECGD는 현지 통신사업자인 KaR-Tel의 통신장비 구매를 위하여 Citigroup이 지원하는 3,000만 달러 중 2,800만 달러에 대하여 수출보험을 제공하였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KaR-Tel의 모기업인 VimpelCom이 보증하였다.

6) 캐나다의 중형 항공기 수출업체인 Bombardier가 그 지원 대상임.